

# 해경, 구조·구난 업무 소홀 외형 키우다 '철폐'

### 정부 조직법 개정... 해경 수사·정보 기능 경찰청 이관

### 안행부 안전업무·해수부 교통관제 국가안전처로

세월호 침몰 사고의 대처 미흡에 따른 조치로 해경은 해체되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도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검경 합동 수사과정에서 희생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져 가는 해경에 대한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시킨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전행정부의 조직 기능 축소와 개편이 불과 1년반도 안돼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은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해경 해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하면서 부처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수술 의지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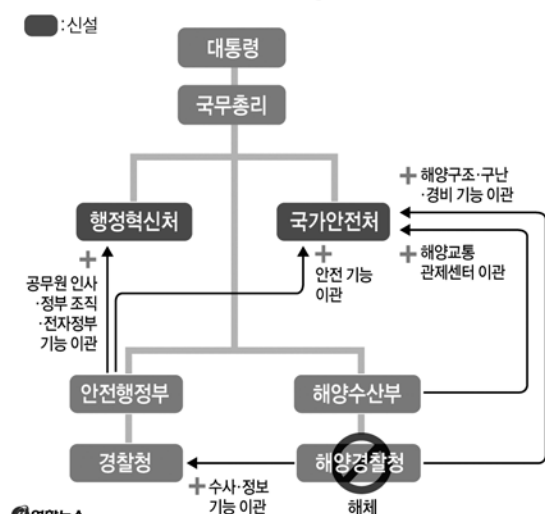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시 현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해경은 이에 해

체되고 안행부와 해수부는 각각 행정자치 업무와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전통적 순수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이관되면서 그 위상이 대폭 축

대국민담화 정부 조직 개편 내용



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시 사고해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겠다고 밝힌 19일 오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서망항에서 해양경찰선이 자원봉사자를 태우고 세월호 사고 해역으로 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연합뉴스

##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문제점을 지적받은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까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해수부 퇴직관료의 해운조합 재취업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안전감독·인허가 규

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관유착을 근절하겠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해운조합 등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협회를 포함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 진상 조사위·국가 안전처 신설

### 세월호 특검 제안... 안전관련 조직 통합·지휘 일원화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인 정해진해운과 선장 및 일부 승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관련 문제점과 비리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대응컨트롤타워의 부실과 무능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 배상재원

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면서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모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공직사회 개혁... 고시제 폐지"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민간전문가 선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 위에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고시제도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더욱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

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궁극적인 고시 폐지의 폐지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중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갑작스러운 공직제도의 변화로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박 대통령은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Bakwon Gwangju Eye Clinic' (밝은광주안과). Features large Korean text: '老安시려 노인교정' (Older, safer eye correction). Includes contact info: 1566-9988, website: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and address: 밝은광주안과. Small text at the bottom mentions '신세계백화점' and '눈모양빌딩'.

Advertisement for 'Gwangju Woori Credit' (광주원광신협). Headline: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Knowing credit unions is the completion of wealth creation!). Key offer: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Tax-free deposits of 30 million KRW per person). Interest rates: '대출한도 25억원' (Loan limit 2.5 billion KRW), '한도는 높게 최대 ~80%' (Loan limit high, up to ~80%), '금리는 낮게 최저 4.3%~' (Interest rate low, starting from 4.3%). Contact: 대표전화 1599-4474, website: 광주원광신협.

Advertisement for 'Gwangju Saemaeul Credit' (광주새마을금고). Headline: '광주새마을금고 신입직원 모집공고' (Gwangju Saemaeul Credit New Hire Recruitment Notice). Text: '저희 광주새마을금고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새마을금고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At our Gwangju Saemaeul Credit, we are recruiting new staff who will take on a leading role in the future based on the values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the spirit of Saemaeul Credit). Recruitment details: 1. 모집구분: 계약직 신규 직원 (Recruitment category: Contract new staff), 2. 모집인원: 0명 (Recruitment number: 0), 3. 응시자격: -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Application qualifications: Those who do not fall under the disqualification criteria specified in the Saemaeul Credit personnel regulations), 4. 응시방법: - 기간: 2014년 5월 14일 ~ 2014년 5월 21일 (Application method: - Period: May 14, 2014 ~ May 21, 2014), - 접수: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Application: In-person application (submitted documents are not returned)),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최근3개월이내) (Documents to submit: - Resume 1 copy (attach photo: within 3 months)), - 자기소개서 1부 (Self-introduction letter 1 copy), - 주민등록등본 1부 (Residence registration certificate 1 copy),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Final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and transcript), 6. 기타 사항: - 근무조건: 주5일 근무제, 공휴일 휴무 (Other matters: - Employment conditions: 5-day workweek, public holidays off), 급여 및 복리후생은 당 금고 기준에 준함 (Salary and benefits are based on the local credit union standard), 7. 찾아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246번길 3(양동) 광주새마을금고 기타문의 사항 TEL 062)361-3515 ~ 7(충무과) (Where to visit: 3, Yangdong, Gwangju Saemaeul Credit, Gwangju, Gyeonggi-do. For more information, call TEL 062)361-3515 ~ 7 (Chungmu-branch)).